

## 창고 대여 서비스업, 신산업으로 각광



▲ 한 창고 대여 물품 보관 서비스 업체 사무실 모습, 사진=AP

창고 대여 물품 보관 서비스업이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21세기 들어 첨단 정보기술(IT) 산업과 각종 벤처기업, 신종 자산투자 등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미국 최고의 '진짜' 신산업은 창고대여 물품보관 서비스업"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월가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지난 20년 동안 5배 성장한 반면 창고 대여 물품 보관 서비스업은 40배 성장했다. 경제통계 전문기관인 팩트셋에 따르면 창고 대여업은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2022년 20배 이상 성장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장률 20배를 단 3년 만에 두 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팬데믹 기간 여러 기업이 실시한 재택근무 제도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집에 홈오피스를 차렸고 이에 밀려난 가정·개인용품을 대여창고에 보관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과 사진첩, 책, 자전거와 낡은 승용차 등을 다 커서도 버리지 않고 차고와 창고에 쌓아두는 미국인의 생활습관이다. 그러다 보니 집은 지저분해지기 마련인데, 창고 대여 산업이 바로 이 틈새를 노린 것이다.

WSJ는 "단순히 창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보관 물품의 관리를 자동화하고 고객이 직접 보관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IT 시스템까지 갖추는 등 창고 대여 산업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년 후면 '백인 과반 시대' 끝난다

2045년 이후 미국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미국 정치 매체 '더힐'은 전날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 "2045년이면 백인(히스패닉 제외)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백인 비중은 75세 이상의 경우 77%, 55~64세는 67%를 차지한다. 35~44세에선 55%이며, 18~24세 그룹은 50% 수준이다.

인구조사국은 2050년이 되면 18세 미만 백인 비중은 4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990년대 후



▲ 산타모니카 부두를 걷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사진=연합뉴스

반부터 2010년대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끝으로 미국의 백인 과반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뜻이다.

다만 인구학자들은 이런 '인종 분석'이 미국의 실제 인종 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인종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미국인 중 1,800만명은 두 개 이상의 인종

정체성을 가졌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백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응답한 이들까지 백인 인구로 포함하면, 2045년 백인 인구 비중은 49%에서 52%로 상승한다.

리처드 알바 뉴욕시립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혼혈인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졌다"며 "그들은 자신이 백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소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그랜드캐니언 주변 내셔널 모뉴먼트 지정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주변 100만 에이커가 내셔널 모뉴먼트(National Monument, 국립기념물)로 지정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그랜드캐니언 남쪽 레드뷰트 에어필드에서 이런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땅을 보존하는 것은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면서 "이것은 경제에도 좋고 국가의 영혼에도 좋다.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자연 보호,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한 내셔널 모뉴먼트는 국립공원과 유사한 성격이다. 다만 의회가 개별 입법을 통해 지정하는 국립공원과 달리 내셔널 모뉴먼트는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에 지정 권한이 있다.



▲ 포고문에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이 지역에서 우라늄 채굴이 영구 금지된다. 다만 기존 채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알리 자이디 백악관 국가 기후 고문은 기존 권리를 존중하되 미래 개발은 제한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2012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우라늄 채굴을 금지했으나 이 조치는 2032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환경단체와 인디언 부족 등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북쪽과 남쪽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나 공화당 및 광산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